

# 한겨레

문화 음악·공연·전시

## 안무가 이선아 프랑스 춤축제 초청 신작 발표

수정 2019-10-19 20:29 등록 2010-03-18 17:27



증, 집에서 "이것" 15분만 해라! 병원 안가도 돼..!

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 이선아(31·사진)씨가 프랑스 노르망디  
캉 국립현대무용센터에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 
'당스 다이외르' 축제에서 센터와 공동제작한 신작 <파동>을  
선보인다. 이씨는 2007년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경연대회에서  
'퍼포밍 드림'으로 대상을 받았으며, 독일의 무용전문지 <발레  
탄츠>에서 '2008 주목해야 할 젊은 안무가'로 선정된 바 있